

배포일시	2019. 12. 27.(금) 14:00 (총 8매)		보도시점	2019. 12. 30.(월) 09:00	
담당부서	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	담당자	과장 오미림 사무관 이광연	전화번호	02-2181-0881 02-2181-0882

세계가 인정한 과학기기, 「금영 측우기」 국보 지정 예고

- 기상청 소장 「대구 선화당 측우대」 함께 지정 예고 -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문화재청(청장 정재숙)으로부터 세계적으로 높이 인정받은 기상측기 3점에 대해 국보 지정을 예고 받았다.
 - 관련 보물은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는 금영 측우기(보물 제561호), 대구 선화당 측우대(보물 제842호) 2점과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창덕궁 측우대(보물 제844호) 1점이다.

- 이 보물들은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기상관측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유지되었음을 나타내는 유물로 세계적으로 독자성과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아왔다.

- 보물 제561호 「금영 측우기」는 현존하는 유일한 측우기로 1837년(헌종 3년)에 제작되어 공주에 설치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무단 반출된 것을 기상청이 환수(1971년) 하여 소장해왔다.
 - 「금영 측우기」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상·중·하단이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, 크기는 세종실록에 기록된 크기 및 무게와 같아 세종대의 측우기 제도가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.

- 보물 제842호 「대구 선화당 측우대」는 1770년(영조 46년)에 제작되어 대구 선화당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측우대다.
 - 「대구 선화당 측우대」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, 전·후면에 제작 시기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측우대 규격을 공식화한 영조대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.

- 보물 제844호 「창덕궁 측우대」는 1782년 제작된 것으로, 측우대 제도가 정조대(1776~1800)에도 이어졌음을 알려주는 유물로,
 - 조선 전기에 확립된 강수량 측정제도가 조선 후기까지 그 전통이 지속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사례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.

-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보물 3점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·검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국가지정문화재(국보)로 지정할 예정이다.

- 한편, 기상청은 「금영 측우기」와 「대구 선화당 측우대」 실물을 2020년 10월 개관할 기상박물관(서울 송월동 소재)에 전시할 예정이다.

-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기상과학문화의 역사적 중요성과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어 대단히 기쁩니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다양한 기상유물의 보존과 기상과학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” 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「금영 측우기」, 「대구 선화당 측우대」 참고자료
 - 2. 「금영 측우기」, 「대구 선화당 측우대」 사진자료

붙임 1 「금영 측우기」, 「대구 선화당 측우대」 참고자료

□ 「금영 측우기」 및 「대구 선화당 측우대」 제원

○ 「금영 측우기」 상세 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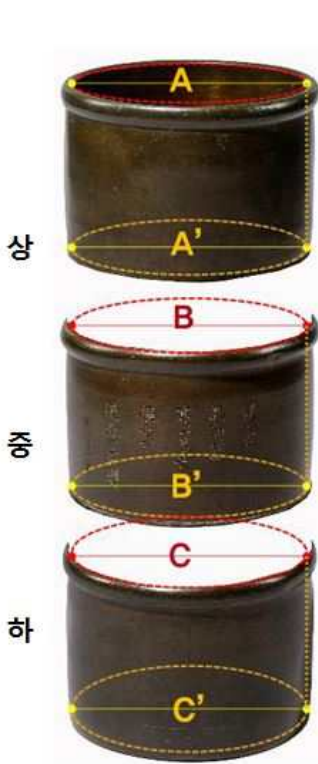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측우기의 구성

표 1. 측우기 3단 부위별 안지름(단위 : mm)

부위	1	2	3	4	평균	편차	
상	A	141.02	140.65	140.15	141.0	140.61	
	A'	139.90	138.55	137.67	139.06	138.71	-1.014
중	B	138.96	139.01	139.50	139.22	139.16	+0.38
	B'	138.67	138.76	138.91	139.21	138.78	-0.28
하	C	141.52	141.06	140.33	140.75	140.97	+2.03
	C'	-	-	-	-		
평균					139.65		

표 2. 측우기 중·하단 하부 바깥 지름(단위 : mm)

부위	1	2	3	4	평균
중	150.47	150.89	151.17	150.47	150.75
하	147.22	146.62	147.53	147.71	147.27
평균					149.01

표 3. 측우기 3단 부위별 높이(단위 : mm)

부위	1	2	3	4	5	6	평균	평균
상 내	101	103	104	102	101	104	102.5	102.5
중 내	101	101	100	101	101	100	100.7	100.7
하 내	98.5	99.2	98.7	98.9	99	98.5	98.8	
하 외	103	102	104	105	106	105		104.2
합계							302	307.4

※ 3분기 결합 시 내부 중심높이 316.9mm, 외부 길이 321.4mm

○ 「대구 선화당 측우대」 제원

측우대	제작시기	재질	길이	폭	높이	구멍지름	구멍깊이
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	1770년 (영조 46)	화강암	367	370	460	155	42

□ 보물 제561호 「금영 측우기」 연혁

- 1837년: 충청감영 (충청남도 공주)에 설치
- 1913년: 충청도 도지사(박중양)가 조선총독부 인천측후소장(와다유지, 和田雄治)에게 전달
- 1915년: 와다유지(和田雄治)가 개인적으로 일본에 반출
- 1918 ~ 1971년: 와다유지(和田雄治) 사망 후 일본기상청에 보관·전시
- 1969년: 중앙관상대(대장 양인기)와 일본기상청(청장 吉武素二)간 반환 협의
- 1971년: 일본기상청(청장 高橋浩一郎)이 중앙관상대에 「금영 측우기」 반환
- 1971년: 「금영 측우기」 보물 제561호 지정

붙임 2 「금영 측우기」, 「대구 선화당 측우대」 사진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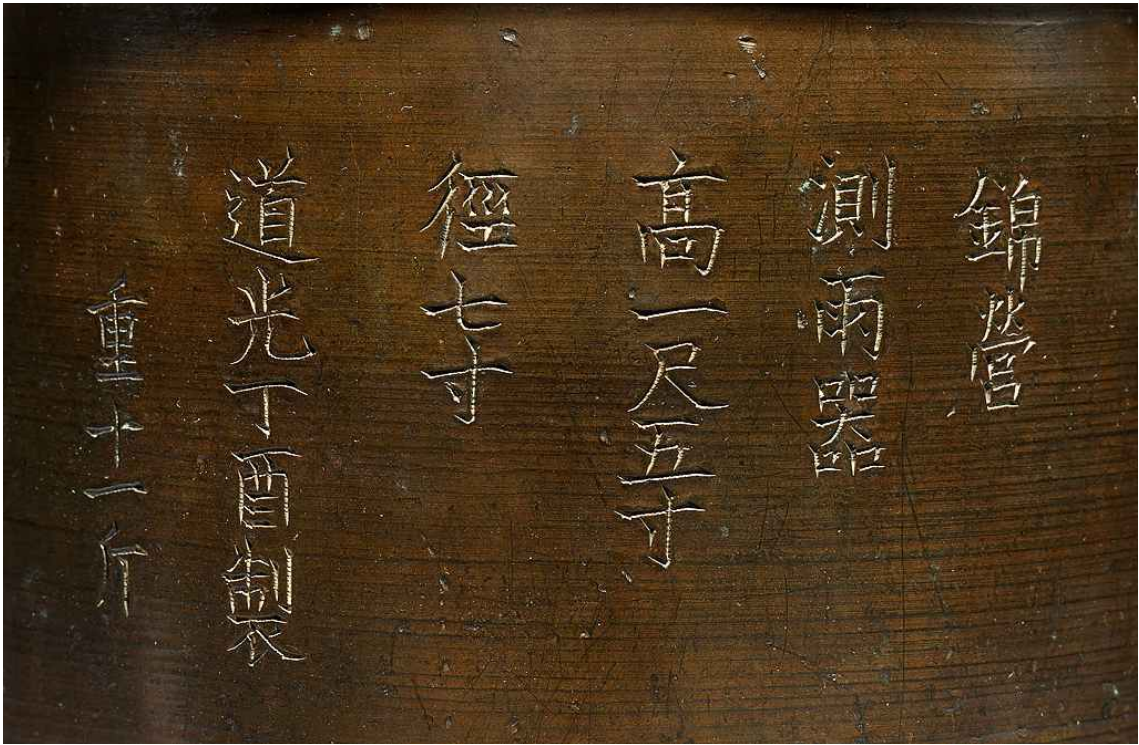
□ 「금영 측우기」



〈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〉



〈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〉



〈금영 측우기 중단 명문〉



〈금영 측우기 하단 명문〉

□ 「대구 선화당 측우대」



〈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(앞면)〉



〈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(뒷면)〉



〈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(윗면)〉